

서아프리카 연수단에 ‘쌀 자급화 경험’ 전수

농어촌공, ‘세계은행-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 일환... ‘케이-라이스벨트’ 확대 기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최근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을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관계자 등 3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은행-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WB-ECOWAS)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날 연수에서 국제농업개발 추진 현황과 선진 농업용수 관리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공사 재난안전 상황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장성호 현장을 견학했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 도시화와 식습관 변화로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2025-2030 지역 쌀 로드맵을 수립해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반관계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 농업 정책과 인프라 개발 경험을 학습하고 한국과의 상호 협력 확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인 ‘케이(K)-라이스벨트’를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의 쌀 생산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공사, 농촌진흥청 등이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농업협력 사업이다.

공사는 농식품 국제농업협력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사업관리와 더불어 경지장비와 관개시설 보급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가나에서 첫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7개국에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는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 대상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 케냐, 가나 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지 컨설팅 등을 병행해 신규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과의 국제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역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정책지원 협약 체결

농어촌공-전북연구원, 농촌 재생위한 광역지원기관 지정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전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정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역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부의 농촌정책이 시·군 단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제

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지역개발 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참여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신규 사업 발굴 네트워크 강화 △광역지원기관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동인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연구원과의 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전북의 미래 농촌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 자동이체 계좌변경 이벤트 ‘바꾸면 돈이 쏟아진다’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자동이체 계좌 변경 이벤트 ‘바꾸면 돈이 쏟아진다!’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 속뱅크의 ‘자동이체 가져오기’ 서비스를 통해 카드대금, 통신료, 보험료 자동이체를 전북은행 입출금 계좌로 변경 후 납부하면 최대 1만 5,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이체를 2년 이상 변경하고 정상 납부 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도 지급한다.

‘자동이체 가져오기’ 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원하는 자동이체를 전북은행으로 쉽고 편리하게 옮겨올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 보험료, 통신비 등 자동이체 목록이 카테고리 분류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최근 6개월 간 전북은행 계좌에서 카드대금, 통신료, 보험료의 자동이체 출금 실적 없는 고객이 대상이며, 전북은행 입출금통장 보유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전북은행은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편의하고 편리한 일상 속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져오기’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전 · 혁신 · 성장 · 창업으로 하나 되다

전북중기청, 2025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16~1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5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단소산업진흥원 등 5개 지원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혁신 스타트업 100여개사가 참여했다.

당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참여 기업과 기관들의 스타트업 성장 의지를 다



지는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 퍼포먼스를 시작, 창업기업 운영에 기초가 되는 인사와 노동관련 분야 솔루션 특강과 함께 스케일업 전략 특강이 진행, 2일차는 성장단계별·사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사업’

에 선정된 예비 창업기업들을 위해 창업 동기부여 및 창업 마인드 형성을 위한 ‘스타트업 Meet-Up & 네트워킹’가 선배 스타트업과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생애최초 마케팅 전략 수립 강의에서는 ‘소비자 반응조사 시뮬레이션’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됐다.

이와함께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 수립 방안 마케팅·관료구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재창업기업에게는 실패 원인 분석 및 극복방안 관련 전문가 멘토링 등이 운영되어 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2025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위원장 박평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박평제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전문가 등 위

원 19명이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진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제조AI 적용사례 및 뿌리공정 AI 적용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박일준 수석이 금형·프레스 제조공정의 최적 작업조건을 설정하는 AI시스템 사례, 표면처리업 제조환경 개선 등 뿌리 중소기업의 ‘AI활용 우수사

례’를 발표했다.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한웅 실장이 ‘AI 기반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하며 뿌리기업의 AI·DX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고질적 애로를 벗어나기 위해 공정별 첨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유휴인력이 없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데이터 축적부터 단계적으로 뿌리업종 맞춤형 AI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건설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건협 전북 등,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 산정방법 등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열)는 지난 16일 건설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재사고 예방을 하고자 마련됐다.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 건설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건설현장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열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